

IAEA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냉각수 방출 정황...심각한 우려”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가동 흔적 외신 “바이든 외교정책 새 난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이 나왔다.

IAE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MW 원자로가 가동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5MW 원자로를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다. 여기에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6월에도 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의 교착 등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브랜디스대학의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인 개리 사모어는 WSJ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정황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사모어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에도 현재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를 20~60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혀왔으나 북한은 이 같은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스티븐슨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는 WSJ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더 우선적인 관심을 뒤야 할 것이라는 점이 영변 핵시설 활동에서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도버 미 공군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 테러 전사자들의 관을 해병대원들이 옮기는 모습을 가슴에 손을 얹고 지켜보고 있다.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지난 26일 자살폭탄테러로 숨진 미군 13명의 시신은 이날 고국 땅을 밟았다. /연합뉴스

‘미군 유해 송환’ 바이든 최악의 날

아프간 미군 13명 회생 공화·민주 비판 봇물 중간선거 앞두고 대형 악재

다들달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를 기념비적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31일로 예정된 아프간 미군 철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테러로 인한 미군 사상자 발생’이라는,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입수된 뒤 소집된 백악관 참모 회의에서는 미군 사망자에 대한 보고가 전해지면서 곳곳에서 울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테러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목이 맨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프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철수를 완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피하려고 애를 썼던 상황, 즉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바로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 철수를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시점에

서 현지 상황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단행된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9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충돌 격화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군 시한이 31일로 만료되고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노출된 채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지난 14일 이후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 5500명을 포함해 약 11만4400명을 대피시켰지만 여전히 미국에 협력한 수천명의 아프간 조력자, 외교관, 인도주의적 단체가 아프간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조래한 데 대해 대통령 책임론이 불붙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하야,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성과 꼽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매디슨 코슨 하원의원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은 지난 27일 1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올 초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톰 라이스 하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카불 공항 겨냥 로켓포 5발 발사...“미 방어시스템이 차단”

미군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로켓포가 여러 발 발사됐으며 미군 방어시스템이 이를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날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겨냥해 로켓포가 5발이나 발사됐지만, 미군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로켓포가 모두 차단 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앞서 현지 자사 직원을 인용해 카불에서 여러 발의 로켓포가 발사된 소리가 들렸다

고 보도했다. 미군은 전날 카불에서 추가 자폭테러 위협이 있는 차량을 공습하기도 했다.

빌 어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군은 오늘 카불에서 무인기(드론)로 차량을 공습, 카불 국제공항에 대한 IS-K(이슬람국가 호라산)의 압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이 포함된 일가족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들의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허리케인 ‘아이다’ 미 루이지애나 강타 2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구시가지인 프렌치 쿼터의 거리에서 허리케인 ‘아이다’에 찢겨 나간 건물 지붕이 나뉘고 있다.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아이다는 16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던 이날 강한 비바람을 몰고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했다. /연합뉴스

일본 대표작가 하루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스가 비판

당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향해 다시 쓴소리를 내뿜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라카미는 전날 방송된 도쿄FM 프로그램인 ‘무라카미 라디오’에서 스가 총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가 지난 7월 2020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긴 터널 속에서 마침내 출구가 보이

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말미에서 “저는요, (스가 총리와) 동갑이지만 출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 사람은 듣는 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눈(시력)만은 좋은가 봐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진정한 출구가 보일 때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맺었다.

올해 72세인 무라카미는 자신과 같은 나이인 스가 총리를 종종 저격해 왔다. 무라카미는 작년 9

월 취임한 스가 총리가 안보법 제정이나 과학의 군사적 이용 등을 비판해온 학자 6명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한 후인 작년 12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비판을 받으면(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비판을 되던지고 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총리조차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가 총리를 나무랐다.

‘노르웨이의 숲’, ‘1Q84’, ‘기사단장 죽이기’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무라카미는 해마다 유력한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매곡지점
(북구 삼죽로 315번길) **572-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침단지점
(북구 침단안로 91번길2-2) **576-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